

# 해외 최신 의약뉴스

편집인 남궁형욱

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 
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

## 개요

천식 치료약물을 사용하는 여성 중 약 1/3은 임신 초기 수개월간 약물 사용을 중단한다. 하지만, 임신기간 중에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치료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## 키워드

임신, 임신부, 태아, 천식, 저산소혈증

### 임신 중에 많은 여성이 천식 치료를 중단 [Nov 01 2012, Reuters Health Information]

네덜란드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, 임신 중 조절되지 않은 천식발작이 약물보다 태아의 발육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천식 치료제를 사용하는 임신부 중 약 1/3은 임신 초기 몇 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팀은 왜 임신부들이 천식치료제 사용을 중단하는지, 또한 복용 중단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.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 이 연구와는 관계없는 몬트리올 대학 약대교수인 루시 블라이스 박사는 몇몇 연구에 의하면 조절되지 않은 천식은 조기출산을 하거나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 있는 등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.

세계천식기구(Global Initiative for Asthma; GINA) 및 미국의 국립 천식교육 예방프로그램(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; NAEPP)에 따르면 임신기간 동안 천식 치료약물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. 임신 중에 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저산소혈증은 태아에게 올 수 있는 위험요인 중에 하나이다.

세계천식기구(GINA)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천식 약물 복용이 태아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확실치 않으며, 설령 안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임신 중 천식 치료약물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.

흐로닝언 대학의 프리실라 젯트라 반 데 우드 교수 연구팀은 임신부가 처방약물을 얼마나 잘 복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덜란드의 처방 데이터베이스에서 25,000명 이상의 임부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. 이 중 2,000명 이상(약 8%)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천식 치료약물을 처방 받았으며, 1994년부터 2003년 사이 천식 치료약물 처방률은 임신 전후, 임신 동안 모두 비슷하였으나,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임신 전과 비교하여 임신 첫 3개월에 처방률이 30%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젯트라 반 데 우드 교수 연구팀이 여성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약물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속형 기관지확장제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복합 흡입제제가 임신 중에 덜 사용되며, 이러한 약물군에 대한 처방은 첫 임신 3개월 동안 약 50% 감소하고, 전 임신기 동안 0.6~1.2% 정도 감소했다고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0월 15일자에서 발표했다.

연구팀은 “천식 치료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, 천식의 증상은 임신 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. 또 어떤 여성은 증상이 완화되어, 약물 치료를 줄이거나 전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. 천식은 조절되는 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의료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**임신기간 중 적절한 천식발작 조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, 조절되지 않았을 때 태아에 대한 위험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.**” 라고 이야기 했다.

블라이스 박사는 “천식 환자는 약물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여성은 임신 중에 약물 복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임신이 추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약물로 인해 증상이 잘 조절될 수 있다면 임신은 여성이 약물을 더 잘 복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며, 아마 임신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은 의료진의 조언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.” 라고 말했다.

**::원문::**

<http://www.medscape.com/viewarticle/773657>

